

‘광주 방문의 해’ 붐업...관광도시 도약

시, 사계절 내내 축제...5대 전략·14개 과제 추진
킬러 콘텐츠 등 인프라 확충·다양한 볼거리 제공

광주시가 올해를 ‘광주 방문의 해’로 정하고 관광 인프라 확대 등 총출력 세부 전략을 앞세워 ‘관광도시 도약’의 기틀을 다진다. ‘광주 방문의 해’를 통해 올 한해 도시이음인구 1800만명을 달성하고 이를 발판 삼아 도시이음인구 3000만명 시대의 서막을 열어간다는 구상이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방문의 해’를 맞아 축제의 관광 상품 및 인프라 확대의 5대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총 14개의 실행 과제를 추진한다. ▶관련기사 3면 먼저 가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통합 축제 브랜드인 ‘G-페스티벌’을 연중 확대하고

사계절 내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5·18기념행사를 비롯해 세계인권도시 포럼과 연계한 오월광주 민주주의 대축제, 젊음과 열정의 스트릿컬처페스타, 낭만과 추억이 가득한 디자인비엔날레와 서양식 축제, 크리스마스 빛 축제 등 시즌별 축제 콘텐츠를 통해 사계절 축제가 있는 도시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10월에는 광주·전남·전북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호남관광문화주간’을 열어 호남권의 풍부한 관광·문화·역사·예술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판촉(프로모션) 활동을 펼친다.

광주시는 통근 관광상품과 파격적인 프로모션도 제공한다.

소셜 ‘소년이 온다’ 속 배경을 활용한 ‘소년의 길’ 밤값 관광상품, 세계양궁선수 권대회, 프로야구·축구·배구 등 스포츠 관람객을 위한 체류형 여행상품을 확대하고 디자인비엔날레, 전국기능대회, 전국 소방제전 등 이벤트 연계 맞춤형 관광상품도 운영한다.

또 광주 숙박시설 이용 때 최대 5만원 할인하는 ‘숙박페스타’와 KTX와 숙박을 연계한 레일텔(기차+호텔) 할인, 단체관객 유치 보상금 확대 등 특화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미향의 도시’ 광주의 감성을 살려 미식주간도 운영한다. 10월 예정된 ‘미식주간’에는 푸드페어, 미식 이벤트 등이 열리고, 김치축제, 남도맛 페스티벌, 동명커피

등과 연계해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올 한해 방문객 중심의 편의성을 갖춘 탄탄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통·숙박·관광 안내 기반시설 개선에 나선다.

관광지 간 이동 편의를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DRT) 확대·운영, 대중교통 내 관광지도 및 맵플릿 비치, 숙박업소 및 음식점 위생관리 강화, 무등산권 자연환경을 활용한 체류형 상품인 ‘지오스테이’ 운영 등을 관광상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관광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도 강화한다. 관광객이 더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관광안내소와 해설사 운영을 관광객 편의 중심으로 개편하고, 관광누리집 다국어 서비스 확대, 관광가이드북 리뉴얼, 관광지 음성 가이드 확대 등도 추진한다.

▶2면에 계속

참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17일 전남 함평 가축전자경매시장에서 함평축협 직원이 구제역 확산 차단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구제역 이번주 고비...22일까지 백신접종 완료

김영록 지사, 긴급 방역 대응 특별교부세 21억 지원 건의

정부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까지 전남지역 전역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15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17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긴급 방역점검 회의에서 “전남 전역에 대해선 일주일, 전국적으로는 2주일 안에 구제역 예방 접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에서는 전염병이 발생한 영암과 무안을 포함해 구제역 위기 심각단계가 발령된 나주·화순·장흥·강진·해남·목포·함평·신안 등 10개 시·군에 대한 백신접종을 17일까지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12개 시·군에 대한 백신 접종은 22일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송 장관은 “접종 후 항체가 생기려면 일주일 정도 경과해야 한다”며 “경각심을 가지고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한우 축사는 돼지 축사와 달리 개방형으로 바이러스에 상당히 취약할 수 있는 구조여서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재난대책회의에서 “빠진 없

이 신속히 백신을 접종해 바이러스 방어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모든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최대한 기간에 접종을 완료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발생 지역과 인접 10개 시·군은 17일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다른 시·군도 22일까지 일정을 최대한 당겨서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축산 농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있는 만큼 이들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알고 준수하도록 외국어로 번역해 고지할 것”을 강조했다.

▶2면에 계속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알림

제2회 영산강사랑 한마음 걷기대회



3월 29일(토) 나주시 빛가람 호수공원

제9회 나주사랑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도 병행

지역 언론을 선도하고 있는 광남일보와 (사)광남문화체육재단이 ‘2025 제21회 영산강 사랑 시·도민 한마음 걷기대회’를 개최합니다.

또한 ‘제9회 나주사랑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와 함께 합니다.

창사 30주년을 맞이한 광남일보는 2005년부터 시·도민 한마음 걷기대회를 통해 친환경 스포츠이자 새로운 트레킹 문화인 걷기운동을 널리 보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시·도민 한마음 걷기대회는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거듭나고 있는 영산강이 흐르는 나주시 빛가람 호수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영산강의 가치를 느끼면서 심신단련의 기회가 될 뿐 행사에 시·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일 시 : 2025년 3월 29일(토) 오전 9시 ~ 낮 12시

△장 소 : 나주시 빛가람 호수공원

△참가대상 : 누구나(참가비 없음)

△접수기간 : 2025년 2월 17일(월) ~ 3월 27일(목)
(현장접수 가능 / 사전(온라인) 접수자에 한해 기념품 제공)

△접수방법 : 광남일보 홈페이지(www.gwangnam.co.kr)
→ 온라인 참가신청

△봉사활동 : ‘영산강 사랑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한 초·중·고교생은 1365자원봉사포털 실적등록

△주최주관 : 광남일보 (사)광남문화체육재단, 전라남도, 광남일보TV

△후 원 : 나주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예정) 광주광역시체육회, 전라남도체육회,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 나주시임업후계자협의회

△문의전화 : 광남일보 사업국 ☎062-370-7090

‘배드민턴 퀸’ 안세영, 전영오픈 제패

결승서 왕즈이에 2-1 역전
국제대회 4연패...‘20연승’



‘배드민턴 여왕’ 안세영(삼성생명)이 최고 권위 대회인 전영오픈을 제패했다.

▶관련기사 12면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이자 여자 단식 세계랭킹 1위인 안세영은 17일(한국시간)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전영오픈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왕즈이(중국·2위)를 2-1(13-21

21-18 21-18)로 누르고 정상에 올랐다. 이번 정상은 ‘20연승’을 달성한 것이어서 배드민턴 역사의 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반응이다. 송하종 기자 hajong2@

